

# 민주 지도부, 전북 후보들 지원사격

중앙선대위의 열고  
“대통령·지사·의원  
민주당일 때 더 발전”  
정 대표, 전북대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 호소



정청래(왼쪽 왼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집중유세에 참석해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 전북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 비하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전북도지사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일 때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에 대한 평가”라며 “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 이 대통령도 민주당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12·3 불법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동지들”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했다.

정부는 여당의 힘으로 새만금개발 등 지역 숙원과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정 대표는 “새만금개발 등 전북 발전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성을 기울여 전북 발전에 신행 기울이고 있고, 예산과 법은 민주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전북지사로 만들어주면 당정청이 원팀이 돼 새만금개발 등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북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배려이자 큰 사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당을 사랑해주신 만큼 저희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이원택 후보가 돌내비워처럼 어긋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집중 유세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전북 도지

사 이원택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새만금을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며 “그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 정부이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민주당이다.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돼야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발전을 위해서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것을 이원택(후보)가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에서 정부에서 전북이 그동안 삼중 소외로 많은 겪었다”면서 “이제 다시는 전북이 소외된다는 말이 안되도록 정부와 당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한다”고 강

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정 대표는 “전북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없다면서 ‘한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국민의힘이 지금 윤여계인을 꿈꾸면서 고안내, 내란 공천을 한 국민의힘을 전북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원택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달라’고 강조했다.

전북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외에도 ‘대리비’ 지금의 흑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뛰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인사의 전북 방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취재반

## 이원택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도시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확산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지난 24일 진안고원시장에서 합동유세를 진행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 24일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도시 추진”을 약속했다.

이원택 후보는 이날 “개별 시·군 단위를 넘어 광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촌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고령화라는 3중 위기에 더해 인공지능(AI)·로봇 전환으로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추진의 핵심 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산 △도시·시·군비 재정 매칭을 통한 광역 단위 모델 구축 △지역화폐 연계로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순창군과 장수군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2개 군(郡) 외에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 12개 시군의 면(面) 지역 중 인구가 감소한 모든 면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정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매칭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험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

시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면 단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람이 살고 소비하고,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전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어촌과 도시가 서부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진안을 찾아 전춘선 진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과 진안고원시장을 방문하고 합동유세를 진행하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별취재반

## 김관영 “생활비 줄이고 소득 늘리겠다” | 민생·돌봄 공약 발표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자신의 4·5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 급속한 초고령화로 민생 현상이 사실상 비상상황”이라며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체계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 또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며 누구나 고향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따뜻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민생 7대 정책과 돌봄 7대 정책



등 총 14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 분야 공약으로는 도심과 전통시장, 역사권 경영주자장 확대와 관광·교통·결제를 통합한 전북 투어패스 2.0 도입을 약속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북형 반월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정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 소득 마을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긴급 지원과 원스톱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복지·주거·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스마트 삼점 전환 지원과 전북형 K-위계 이선과 K-푸드로드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설립 추진, 생활체육 및 웰니스 치유관광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이어 발표한 돌봄 정책에서는 어르신 버스비 지원과 경로당 환경 개선, 치매 인식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며, 긴급 돌봄과 식사 지원 사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와 농어촌 방문 진료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는 단순 공익형 사업을 넘어 돌봄·안전·생활 지원 분야의 역량 활용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함께 장애인 개인 예산제 ‘를 선제 도입해 맞춤형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맞춤형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자립 지원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자립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으로는 공공 반려동물 진료소 설치와 유기 동물 구조·입양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민주 박지원 의원, 전북 찾아  
이원택·박지원·김의겸 후보 지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군산·김제·부안(을) 지역에 출마하는 같은 당 평당원 최고위원인 박지원 후보 국회의원 재선거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출마하는 같은 당 김의겸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전북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새만금 개발의 꿈을 현실로 만들 새만금 드림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 김의겸 국회의원 후보 등이 함께 힘을 모으면 전북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원택 후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을 때부터 농업 정책에 매우 해박했다”며 “제가 해남·완도·진도 지역에서 농업 문제를 접하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가장 먼저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택 후보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농업뿐 아니라 피지컬 AI·바이오·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까지 두루 능력을 갖춘 미래형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는 “전북에서 태어나 상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라며 “‘호남 정치의 미래를 이끌 훌륭한 재목’이라고 지켜세웠다. 그는 ‘박

지원 후보에게서 마치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한 성장 가능성을 느꼈다”며 “젊은 정치인을 키워야 호남 정치도 미래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의겸 후보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예리한 판단력과 개혁성을 갖춘 젊은 정치인으로 새만금청장을 역임하며 단기간에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큰 업적을 낸 분”이라며 “청와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라며 지켜세웠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대북 송금 특검으로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가 가장 먼저 자신을 데리고 간 곳이 새만금이었다”며 “빈드시 새만금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김 대통령의 담부를 지금도 잊고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9호 투자와 피지컬 AI·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지금이 바로 새만금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함께 움직인다면 새만금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군산의 미래 경제 지도 바꾸겠다

민주 김의겸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에 출마한 김의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본격적인 표심 공하기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조촌동사거리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과 함께 합동 출정식을 열고 필승을 결의했다.

현장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시·도의원 후보들이 대거 집결해 메머드급 민주당 원팀 선대위의 위용을 과시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후보들은 “경순한 자세로 시민들의 마음을 열고 군산과 전북의 동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동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거리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들은 바로 위대한 군산 시민 여러분”이라며 “유권자들께서 주신 이금쪽같은 기회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

고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구를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후보는 군산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5대 핵심 공약으로 △새만금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완성 △H중공업 군산조선소 2028년 원전 부활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조성 및 이의 시민 환원 △새만금 신시·아미지구 인공해면(라군) 및 최고 리조트 연내 착공 △‘군산(灣)동네케어’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전면내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 논공 안정수매 확대... 농민 생존공약 발표

무소속 김종희 국회의원 후보



무소속 김종희 국회의원 후보(군산·김제·부안을)가 ‘논공 안정수매 확대’를 핵심으로 한 3대 농민 생존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쌀 적정생산을 이유로 논공 재배를 권장해 놓고 이제 와서 농민에게 수급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논공 정부 수매물량 확대, 수매안정 조기 확보, 전라지역농민

제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농자재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를 통해 농가 생산비를

인력난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